



김경진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경진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제9회 기술사의 날」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 수여받은 안전업계의 대가이다. 김경진 이사장을 만나 그가 남겨온 발자취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일 시 : 2010년 6월 7일(월) 11:00
- 장 소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이사장실
- 참석자 : 김경진 이사장(건설안전기술사), 한국기술사회 박태희 홍보위원, 구수연 사원

Q 먼저, 『제9회 기술사의 날』에서 과학기술 훈장(웅비장)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오로지 『안전진단, 안전점검』에 대한 집념이 팔 할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 산업대학원에서 석사취득,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78년에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립건설공무원 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원 등에서 건설안전에 대한 강사로 활동 및 국민회의 안전관리 대책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건교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활동하였지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20여년간 건설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Q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주요 사업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사업영역을 크게 네가지로 건축, 토목, 환경, 문화재 부문에서의 설계 및 시공, 증축, 노후화, 유지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발견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Q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명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1991년이었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사람도 생(生)과 사(死)라는 순환의 구조가 있듯이 구조물도 순환이 있다고 믿어 수차례 시특별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숫물에도 주춧돌이 파인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니더군요. 그러던 차에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1995년에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지요. 그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특별, 시설물안전관리법, 건설관리법을 통합한 기준에 건설안전관리법 제정을 관계부처에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진단기관 최초로 문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1998년 4월 4일자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경주지역 소재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합동조사 협조 요청의 공문받은 것이 최초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문화재 소장자 같이 강의 후 강사휴게실에서 얘기 하다 보니 문화재 안전진단에 대해 공론화되어 추진하게 되었지요. 그 일이 기폭제가 되어 익산미륵사지라던지 송광사, 흥인지문, 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 문화재 안전점검을 도맡다시피했지요. 문화재 결함은 거의 기초부분이 많고 목조부분 경우에는 구조부분에 대한 결함도 있지요. 그러나 지반쪽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일반 구조물과 달리 공통된 취약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화라던지 산성비 등의 자연적인 요소에 의한 부식이 많습니다. 문화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자체예산에 안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Safety와 Security는 다릅니다. Safety는 자연적인 요소에 대해 예방임에 반해 Security는 방화나 도굴방지에 의한 보존인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예산 자체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리책정을 수차례 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Q 평소 이사장님의 인생관과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94년 3월에 건설부 내에 건설안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안전과가 1995년도에 신설되었지요. 저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에 공헌토록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기도 하지요.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원훈은 인간, 기술, 신뢰입니다. 인간다운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신뢰가 생성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말은 인간됨됨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지요. 그 이유는 신뢰가 없는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

역대 기술사회 회장님들이 모두 기술사 위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위상정립에 대해 힘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중이 염불이 아니라 잣법에 관심이 있으면 중이 아니듯이, 기술사는 최고 기술자로서 재물에 욕심을 가지기 보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군요.

